

“안드레의 신앙”

요한복음 6:1-13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름이 잘 알려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누구보다도 출중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는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조용하게 지낸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무슨 특별한 것을 가르쳤거나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단지 안드레는 당연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와 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여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네번째 표적으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이백데나리온의 떡(약 2-3 만불) 정도 필요하고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구할 곳이 없다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에 안드레가 나섭니다.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문제가 생겼을 때 빌립식의 믿음과 안드레식의 믿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믿음의 차이는 빌립은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지만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빌립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 안되면 안된다고 믿었고 안드레는 자기는 안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믿음 중심이었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러자 5 천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빌립이 무엇을 보는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광야를 보았습니다. 인적이 없고 오직 사막같이 막막한 광야, 그 광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본 것은 많은 수의 군중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수가 거기에 모인 것을 보고 그는 마음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본 것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떡 살 곳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빌립이 바라본 것은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빌립은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완전히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 예수님 앞에서 안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안드레가 본 것은 빌립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지만 광야 중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군중 가운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안드레가 보았던 예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권능의 사자인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심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모든 부정적인 여건 가운데서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처지에서 빌립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안드레는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안드레는 만족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안드레는 현실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많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가오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에 그 광야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떡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시간이 늦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심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아무 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는 낙제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 주님이 시험해 보신 것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기적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 눈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알아보신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을 그의 감각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볼 때는 나는 못한다, 나는 감각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볼 때라도 이런 일은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안된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 28:26) 빌립은 자기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굽혀서 보내시지 않을 줄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꿈을 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꿈이 있어야 믿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운명과 환경에 간섭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내 인생의 놓인 문제 앞에 나는 빌립처럼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반응하고 있나요? 안드레처럼 반응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 하려다 실패를 경험해 보았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을 때 해결되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목원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놓인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